



중례 V-4

Konus telescope를 이용한 Implant supported overdenture 수복중례

배기창*, 우이형, 권공록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 보철학교실

하악의 무치악환자에 있어서 의치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임상에서 접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Brånemark에 의해 implant가 개발된 이후로 이를 이용한 overdenture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무치악 환자에게 있어서 가철성 implant지지형 보철물이 고정성 수복물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적은 수의 implant가 요구된다.
2. 보철을 위한 내원이 축소되며 구성비용이 감소한다.
3. 장기간의 전문적인 유지나 합병증의 치료가 용이하다.
4. 자가관리가 쉽다.
5. 인면부의 심미성이 맞추어진 금속이나 도재 치아에 비해서 의치의 치아와 순측테두리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
6. 밤에는 보철물을 제거할 수 있다.

무치악환자에 이용되는 적절한 attachment는 비외상성일 뿐 아니라 다양한 implant fixture간에 적절한 기계적인 응력의 분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무치악환자의 overdenture에 있어서 bar attachment를 이용한 fixture의 primary splinting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bar를 이용한 primary splinting보다 double conical telescope crown을 이용한 secondary splinting이 implant간에 더 적절한 힘의 분산이 이루어짐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double conical telescope crown을 이용한 overdenture는 bar를 이용한 그것에 비하여 더 안정된 의치의 위치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본 중례는 38세 여성환자로 전반적인 치조골의 흡수와 고도의 동요를 보이며 이에 따른 저작의 장애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초진시 이미 #16, #11, #21, #26, #37, #46이 발거된 상태였으며 상악 전치부의 상실로 비심미적인 안모를 보이고 있었고 잔존치아의 극심한 동요를 동반하였다.

이에 상악에 #13, #14, #15, #23, #24와 하악에 #44, #45를 제외한 모든 치아의 발거를 계획하고 상악에는 #13, #14, #15, #23, #24를 지대치로한 konus denture를 계획하고 이에 따른 불리한 하악의 보강을 위해 implant의 식립을 계획하였다.

하악에는 #47, #42, #33, #37의 위치에 implant의 식립후에 자연치인 #44, #45와 함께 double conical telescope crown을 이용한 secondary splinting을 통해 연결하여 자연치아와 denture를 보강한 denture를 계획했다.

그러나 환자의 비협조로 인해 #44의 치주조직의 손상으로 발거하였다. #44의 발거후에 하악은 #45와 4개의 implant를 이용한 overdenture로 수복하였고 현재 지속적인 구강위생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상태이다.